

사람이 희망입니다.

KRIVET Issue Brief

2017

138호

발행인 나영선 | 발행일 2017년 12월 30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석사학위취득자의 지역별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

- 지난 5년 간 국내 대학원에서는 연간 8만 명씩 총 41만 2천 명의 석사를 배출함.
- 호남·제주 지역의 청년층 석사 고용률은 2013년 86.5% → 2017년 63.6%로 크게 떨어짐.
- 석사 취업자의 76.0%가 상용직이며,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78.4%로 가장 높음.
- 청년층 석사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은 78.8%로 2013년도 대비 1.7%p 상승함. 특히 충청권에서 상용직 비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모든 지역에서 상용직 비율이 증가하여 고용 안정성이 개선되었음.
- 지역별 석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대 72만 원까지 차이가 나, 지역별 임금 격차가 큼.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석사학위취득자의 수급 및 고용 현황 분석을 통해 고급인적자원 개발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급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고급 인력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고용 사항 또한 중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 고급 인적자원의 인력 수급에 대한 분석이 많이 없고, 특히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 인력의 1/4을 차지하는 석사학위취득자에 대한 분석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움.
- 이 글에서는 지역별 석사학위소지자의 수급과 고용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인적자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분석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3~20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13~2017)」

- 분석 자료: 신규 석사학위취득자 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2017년 「교육통계연보」, 석사학위소지자의 고용 현황은 통계청의 2013~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함.
- 분석 대상: 고용 현황 분석은 만 65세 이하의 석사학위소지자로 한정하였으며, 2013년 1,024,226명, 2017년 1,216,363명을 분석함(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중치를 적용함).
 - 청년층의 경우 석사학위취득자가 노동시장에 비교적 늦게 진출하는 것을 고려하여 만 20~34세로 정의함.
 - 「교육통계연보」의 신규 석사학위취득자 수에 연령 정보가 없어 전체로 분석함.

02 신규 석사학위취득자 공급 현황

| 연간 8만 명 이상이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음.

- 지난 5년 간 국내 대학원에서는 연간 8만 명씩 총 41만 2천 명의 석사를 배출함.
 - 연간 신규 석사학위취득자 규모는 큰 증감이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원에서 연간 3만 7천 명의 석사를 배출하였으며, 그 다음은 영남권 대학원이 1만 5천 명, 경기·인천·강원은 1만 3천 명, 충청권은 1만 2천 명, 호남·제주는 7천 명 순으로 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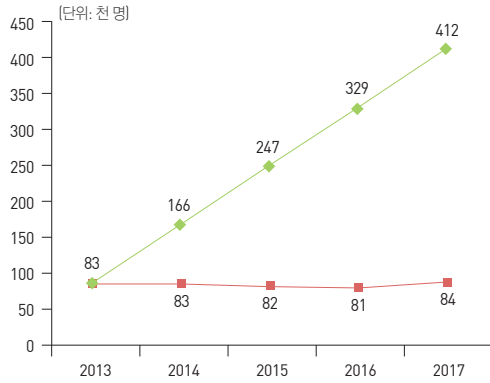


KRIVET 모바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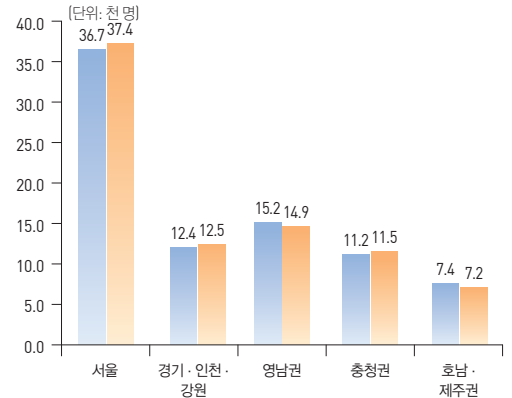
- 서울,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대학원에서 배출한 석사학위취득자가 2013년 대비 2017년 약간 증가하였으며, 영남권과 호남·제주권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증감폭이 크지 않음.



자료 |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1] 신규 석사학위취득자 수



[그림 2] 지역별 신규 석사학위취득자

03 석사학위취득자 고용 현황

호남·제주권의 석사 고용률이 크게 줄었으며, 특히 20~34세 청년층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짐.

- 석사 고용률은 2013년 84.5% → 2017년 84.1%로 0.4%p 감소함.
 - 지난 5년 간 석사학위취득자 41만 2천 명이 새로 배출되었으나 석사 취업자 수는 약 15만 8천 명이 증가하여 석사급 일자리가 공급에 맞춰 증가하지 못함.
- 지역별 석사 고용률을 살펴보면, 호남·제주권이 2013년 89.1% → 2017년 83.9%로 5.2%p 감소함.
 - 충청권은 석사 고용률이 84.7% → 86.8%로 2.1%p 상승하였으며, 경기·인천·강원 지역도 84.4% → 83.8%로 0.6%p 감소함.
- 20~34세 청년층 석사 고용률은 2013년 82.3% → 2017년 80.3%로 2.0%p 감소함.
- 특히 호남·제주 지역의 청년층 석사 고용률은 2013년 86.5% → 2017년 63.6%로 22.9%p나 떨어졌으며, 영남권도 78.4% → 74.5%로 3.9%p, 충청권은 84.0% → 82.5%로 1.5%p 감소함.
 - 호남·제주 지역의 청년층 석사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지난 5년간 약 20%p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청년층 석사 비경제활동인구의 47.6%가 취업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청년층 석사 비경제활동인구의 30.0%가 취업 준비²⁾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각주 | 1)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포함
2)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포함

〈표 1〉 지역별 석사 고용률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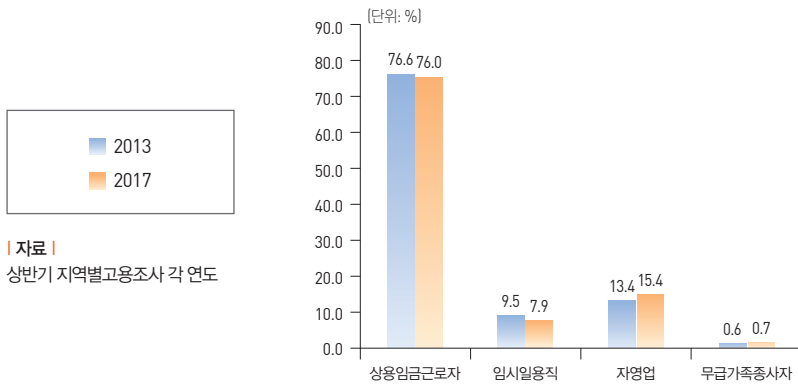
		전체	서울	경기·인천·강원	영남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전체 석사	2013	84.5	83.3	84.4	85.0	84.7	89.1
	2017	84.1	83.5	83.8	84.7	86.8	83.9
청년층 석사	2013	82.3	83.6	82.0	78.4	84.0	86.5
	2017	80.3	83.9	82.2	74.5	82.5	63.6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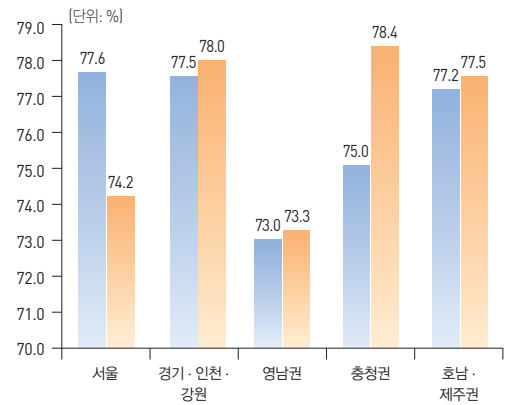
청년층 석사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은 5년 전보다 개선됨.

- 석사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76.0%가 상용직이며, 자영업은 15.4%, 임시일용직은 7.9%, 무급가족 종사자는 0.7%임.
 -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였으며, 자영업 비율이 다소 증가함.

- 지역별 석사 취업자 상용직 비율은 충청권이 7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기·인천·강원 78.0%, 호남·제주 77.5%, 서울 74.2%, 영남권은 73.3% 순임.
 - 충청권은 2013년 75.0% → 2017년 78.4%로 3.4%p 증가하였으며, 서울만 유일하게 2013년 77.6% → 2017년 74.2%로 3.4%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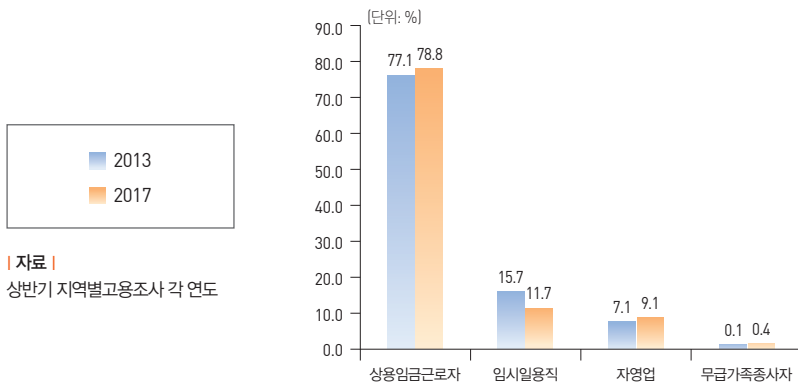


[그림 3] 석사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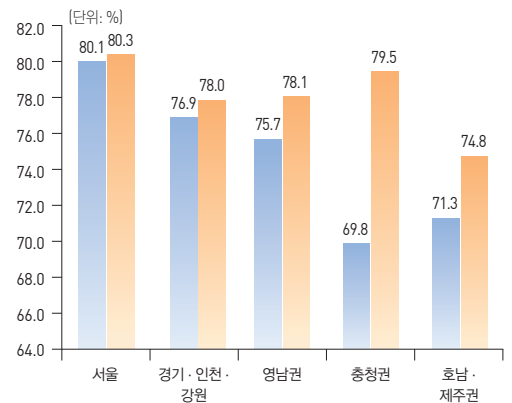


[그림 4] 지역별 석사 취업자 상용직 비율

- 20~34세 청년층 석사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이 2013년 77.1% → 2017년 78.8%로 1.7%p 상승하였으며, 자영업 비율도 7.1% → 9.1%로 2.0%p 증가함.
- 지역별 청년층 석사 취업자 상용직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80.3%로 가장 높고, 충청권은 79.5%, 영남권은 78.1%, 경기·인천·강원은 78.0%, 호남·제주는 74.8% 순으로 높음.
 - 충청권의 경우 청년층 석사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이 2013년 69.8% → 2017년 79.5%로 9.7%p 상승하였으며, 다른 지역도 5년 전에 비해 상용직 비율이 증가하여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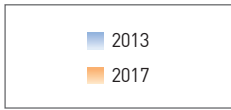
[그림 5] 청년층 석사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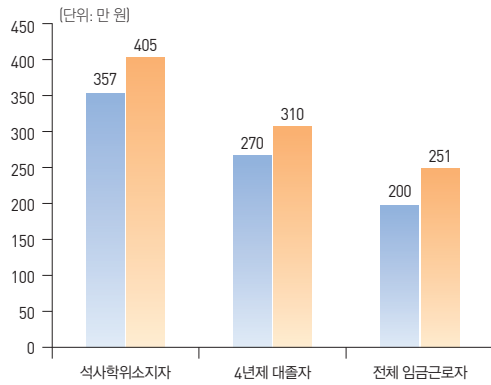
[그림 6] 청년층 석사 취업자 상용직 비율

| 석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역별 임금 격차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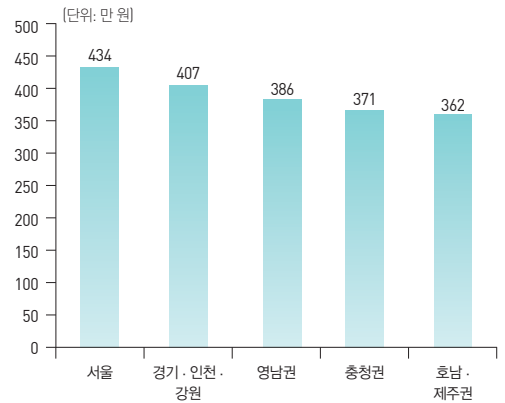
- 석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5만 원으로, 4년제 대졸자 310만 원, 전체 임금근로자 251만 원보다 현저히 높음.
 - 석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연평균 3.2% 증가하여 4년제 대졸자(3.5%)와 전체 임금근로자(5.8%)보다는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 편임.
- 지역별로는 서울이 434만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기·인천·강원이 407만 원, 영남권은 386만 원, 충청권 371만 원, 호남·제주권은 362만 원 순으로 지역별 임금 격차가 큰 편임.



[자료]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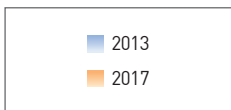


[그림 7] 석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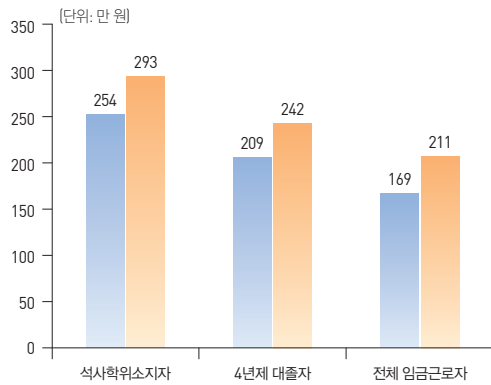


[그림 8] 지역별 석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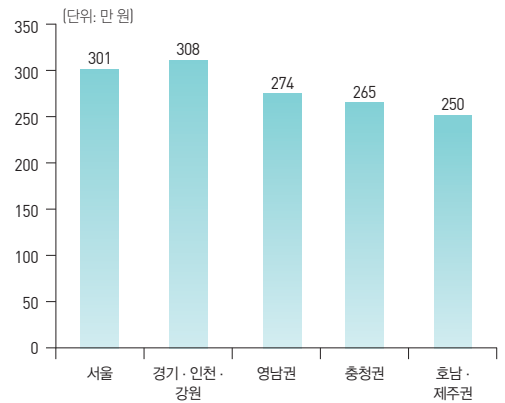
- 20~34세 청년층 석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93만 원으로, 4년제 대졸자 242만 원, 20~34세 전체 임금근로자 211만 원보다 높음.
 - 청년층 석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6% 증가하여, 4년제 대졸(3.8%)과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5.7%)보다는 연평균 증가율이 낮음.
-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이 308만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서울 301만 원, 영남권 274만 원, 충청권 265만 원 호남·제주는 250만 원 순으로 지역별로 최대 51만 원 차이가 남.



[자료]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그림 9] 청년층 석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그림 10] 지역별 청년층 석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04 시사점

- 청년층 석사 고용률이 감소하였고 감소폭(-2.0%p)도 4년제 대졸 청년(-1.4%p)과 청년층 전체(+0.8%p)보다 커, 전체 석사 인력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호남·제주지역의 경우 청년층 석사 고용률이 크게 감소하여 해당 지역의 석사급 인력 수급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
 - 호남·제주지역은 석사 공급 규모의 변화가 거의 없고 해당 지역의 4년제 대졸(-3.3%p)과 청년 고용률(-1.3%p) 감소폭보다 청년 석사 고용률의 감소폭이 커 석사급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호남·제주 지역에 고급 인력이 필요한 산업을 육성하거나 인력 수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지역에 비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석사급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음.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석사 졸업자에 대한 정확한 진로·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경력을 탄탄히 설계한 뒤 석사 과정 진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김혜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